제 2 차 논문작성 및 심사에 관한 워크샵을 마치고

대한마취과학회 편집위원회

김 성 덕 · 김 종 학 · 신 양 식
오 용 석 · 채 병 국 · 최 영 규

The 2nd Workshop on Publication of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Seong Deok Kim, M.D., Jong Hak Kim, M.D., Yang-Sik Shin, M.D.
Yong Seok Oh, M.D., Byung-Kook Chae, M.D., Young Kyo Choi, M.D.

격월간으로 시작하여 1994년부터 월간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대한마취과학회지는 최근에 와서 논문의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 수련에 매진하는 전 마취과 회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지가 명실공히 의학 전문지로서 세계화 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회원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져야 되는 학회지가 되어야 겠으며 이러한 이상적인 학회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함으로써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회로서는 대한 마취과 학회지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1995년 3월 1차 워크샵과 대한 마취과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대한마취과 학회지 28권 3호)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바 금년에도 학회 집행부의 배려로 1996년 3월 22~23일 양일간 학회지 심사위원들이 충청남도 도고에 모여서 제 2차 워크샵을 갖게 되었습니다. 2차 워크샵은 1차와는 달리 모든 심사위원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학회지 심사 및 편집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우리 학회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고 모두가 정기적인 워크샵 혹은 지부 초청 형식으로 순회 워크샵의 필요성을 통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충심어린 의견을 편집위원회에서는 요약하여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학회지의 표지 디자인과 양식은 96년 30권 1호부터 변경되었으나 그 크기가 너무 작게 느껴지며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A4 대신 US letter 크기로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95년도 추계평의원회의에서 예산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사항으로 우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회지의 질적 평가에서 그 학회지의 정시출간 여부는 물론 게재불가를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회지의 현재 게재상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투고규정 미비인데 투고규정 준수는 어느 학회지나 마찬가지로 저자들이 지켜야 할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 투고규정에 맞더라도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철저한 모방이나 학문의 경향에 역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권익에 유해한 경우나 저자 자신에게 형사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논문등 여러가지 사유로 게재불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회지에 게재 요청한 논문의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긴 실정입니다. 이는 책임 저자의 표지가 전공의로 명기가 되어 있어 우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외에, 저자들의 회신 지연, 심사위원들의 심사 지연등 원인이 다양한데 이는 모든 회원들의 노력으로 차츰 극복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논문 심사상에 저자와 심사위원간의 이견 발생시 저자들의 의견을 직접 심사위원에게 feedback하든지, 필요할 때에는 양자간의 의견을 학회지에 게재하여 지상 토론케 하는 방법 등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문 초록 작성과 통계처리에 대한 심사는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 사항도 역시 예산상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2차 워크샷을 통한 지적사항들은 학회 관계자들과 회원 모두의 이해와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어지며 편집위원들 및 심사위원들 모두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새삼 느껴지는 워크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샷후 설문지에 대한 응답 중 “편집위원회에 바라는 의견”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1) 심사위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 개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년 심사위원 일부가 교체되며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본 위원회에서 느껴 왔습니다. 따라서 학회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같은 워크샷을 매년 정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이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2) 논문 게재 과정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

게재 과정이 자주 지연되는 원인을 지속적으로 규명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우편 송달 속도는 우리나라 우편 제도상의 문제로써 해결할 수 없으나 ‘등기’ 처리로 전환하였고 본 위원회를 한달에 두 번씩 개최함으로써 편집위원회에서의 지연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속달’ 우송 문제는 너무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유보 상태이며 학회 예산이 허용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밝혀진 지연 사유는 많습니다. 첫째 저자들에게 심사결과 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 통보 후 회신 지연, 둘째 각 병원내의 사무처에서 개인에게 우편물 전달 지연, 셋째 책임(연락)저자의 파견이나 출장으로 근무처 이동에 따른 공백, 넷째 심사위원의 심사 지연 등입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신속한 처리만을 고집하여 심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오니 회원 여러분이 좀 더 여유있는 기간을 두고 게재 요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 3) 지부학회를 통하여 순회 교육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오나 강사진의 큰 희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나 각 지부에서 요청이 있고 각 지부 집담회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좋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사전에 강사진과의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 지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의견 4) 논문 게재 편수의 증량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첫째는 게재 요청 논문 편수가 월간 발행으로 전환한 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둘째 게재 요청 논문의 접수 편수가 일년 내내 일정치가 않습니다. 즉 전문의 고시가 임박하면 많아지고 년초에는 적어지는 경향입니다. 가능한 발행되는 잡지의 각 권의 논문 편수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잡지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증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몇 가지의 요구 사항이 더 있었으나 많은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거나 이미 본 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이오니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